

따뜻한 이야기 의마상을

2021년 겨울호
NO.148

기획

2021 온라인 후원 페스티벌 이야기

이슈와 현장

이주 여성, 누군가의 엄마, 작은 업체의 CEO,
나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
끝없이 도전하는 이주여성의 이야기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큐라 홍효은 감독 인터뷰



작은 바람은 촛불을 끄지만 더 큰 바람은 모닥불을 일으킵니다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신문은 2022년1월14-21자 신문 1면에 “반동의 정치”를 멈춰라”라는 제하에 톱기사를 썼습니다. 선거철을 맞아 인구 중 한 특정 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것과는 정 반대 방향, 구시대로 회귀하는 정치계의 우려스러운 모습에 대한 일갈입니다. 어떤 한 정치인은 여성주의는 “반헌법적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어떤 신문은 대서특필하기도 하는 반지성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성재단 10주년을 맞아 2010년에 출판된 <한국여성재단 10년, 기억과 상상>에서 조형 전 이사장이 언급한 위험 상황이 현실이 된 듯합니다. 즉 여성운동의 결실로 여성 이슈가 입법화, 정책화되었고 이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된 것은 확실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바로 오늘 느끼고 있는 여성운동의 위기를 예견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평등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정책과 제도화 영역으로 흡수됨으로써 이에 반발하는 부분적 세력이 지금 막 강력한 힘을 키우며 등장하는데 정작 이에 맞설 여성운동은 많이 약화된 것이 그 위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단결하여 힘을 모을 수 있는 공통된 여성운동의 이슈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들라면 많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거쳐 온 다양성 증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당사자 운동은(문화예술영역의 다양한 부문별 운동, 이주여성, 한부모, 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과 확대라는 차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운동이 당사자 이슈를 넘어 여성운동의 공통 이슈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운동이 ‘여성들의 시각으로 추진하는 사회 변혁 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적인 지원과 장기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성운동의 위기’가 극복되었다기보다는 더 심화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재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요즘같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마이크에 대고 겁 없이 여성에 대한 적의를 표현하는 시대에 여성들이 움추려들거나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안전하게, 자신있게 존재할 수 있도록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통제하거나 침묵하게 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표현 방법을 실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성주의는 헌법정신에 기반한 이념이라는 점, 여성주의는 남성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인본주의의 완성이라는 점, 더 나아가서 생태계를 살려내는 감수성을 강조하는 이념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성운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제약하는 틀을 깨고 나갈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바람은 촛불을 끄지만 더 큰 바람은 모닥불을 일으킵니다. 그런 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JoA0

딸들에게 희망을 2021년 겨울호 NO.148

<이주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는, 이주여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2015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JP모간이 함께 하고 있다. 표지의 주인공은 사업에 참여한 이주여성 15인 대표들 중 한명이며, 일러스트 디자인으로 작업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이주여성 대표들의 일러스트는 2022년 딸들에게 희망을 소식지 표지에 장식될 예정이다.

후원(한국여성재단)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omenfund

유튜브
www.youtube.com/user/kwomenfund

해피빈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딸들에게 희망을 2021년 겨울호 NO.148 발행인 장필화 편집인 노지은 기획·편집 나눔기획팀 발행일 2022년 2월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주소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대표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Contents

사립문

02 작은 바람은 촛불을 끄지만 더 큰 바람은 모닥불을 일으킵니다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기획 2021 온라인 후원 페스티벌 이야기

04 당성과 만든 변화의 시간: 온라인 후원 페스티벌 이야기
08 Dear, 한국여성재단: 이해관계자들이 전하는 한국여성재단 역할 및 축하카드 메시지

이슈와 현장

12 이주 여성, 누군가의 엄마, 작은 업체의 CEO, 나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 끝없이 도전하는 이주여성의 이야기

여성단체와 함께 된다

16 디지털역량강화지원사업 참여 단체 이야기 : 사이버 세상의 길잡이별이 되겠습니다. _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만나고 싶었습니다

18 한국여성재단 영상 콘텐츠는 내 손안에! 마규라 홍효은 감독을 만나다.

재단소식

20 재단활동 2021년 10~12월
22 기부자명단 2021년 10~12월
24 수입과 지출 2021년 1~12월

한국여성재단 2021년 온라인 후원 페스티벌 22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든 변화의 시간'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후원 페스티벌 '22번째, 당신과 함께 만든 변화의 시간'을 2021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난 한 달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시기에 후원 페스티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2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지원 장식을 성평등 중요 감상>

1. 웹사이트 오픈을 통한 온라인 후원 페스티벌 진행

후원 페스티벌은 웹사이트(www.festival.womenfund.or.kr)를 통하여 장필화 이사장 감사 메시지, 재단이 1년간 수행한 유한킴벌리 여성 NGO 장학사업,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이주여성리더 발굴 지원사업,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 등 다양한 사업들과 재단 지원 창작물인 성평등 중요 영상, 후원자들이 전하는 한국여성재단 역할 메시지 등을 한눈에 보며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021년 온라인 후원 페스티벌 웹사이트>



<장필화 이사장 감사 메시지>



<한국여성재단 사업 소개>

2. SNS 채널을 활용한 축하카드 메시지 게시 및 응원 메시지 이벤트 진행

한국여성재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채널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대표,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곽성은 사무국장, 유한킴벌리 I&D위원회,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이임조 대표,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이자 안산문화재단 김미화 대표이사의 축하 카드 메시지가 게시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활용한 한국여성재단에게 보내는 SNS 응원 메시지 이벤트는 창립 22주년 축하메시지를 본인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 후 재미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인증샷을 DM(메시지)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과 메시지, 손 글씨 메시지, 직접 그린 그림 등 많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이벤트에 참여하였습니다. SNS 응원 메시지 이벤트는 온라인 후원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12월 한달 동안 꾸준한 참여로 이어졌으며, 기부 독려와 참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3. '22주년 특별 기부금'과 특별한 선물

올해 후원 페스티벌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로는 유한킴벌리, 라이나전성기재단, 삼성전자(주), 제이피모간증권회사, 교보생명보험(주), 한국희망재단, 주식회사 이엘,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아시아위민브릿지두린두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비온뒤무지개재단, 한국한부모연합, 하나와여럿한부모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창립 22주년을 기념하며 특별 기부금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온라인 후원 페스티벌'은 한 해 동안 함께한 기부자, 파트너 기업, 지원 사업 참여 단체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서,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로 22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연령, 세대, 지역을 넘나드는 여성들의 연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함께 나갈 것입니다.

2021년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후원 페스티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

글-나눔기획팀 성예현 과장

SNS 릴레이 응원 이벤트

한국여성재단을 응원해요! 축하해요!

이벤트 참여방법


- 1 본인의 SNS계정에 한국여성재단의 창립 22주년을 축하하는 응원 메시지를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 2 응원글 업로드 인증샷과 휴대폰 번호를 DM으로 전송!

메시지 보내는 곳  

필수 해시태그

#한국여성재단 #22번째 #당신과함께만든변화의시간

한국여성재단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글에 '참여완료' 댓글 남기면 당첨확률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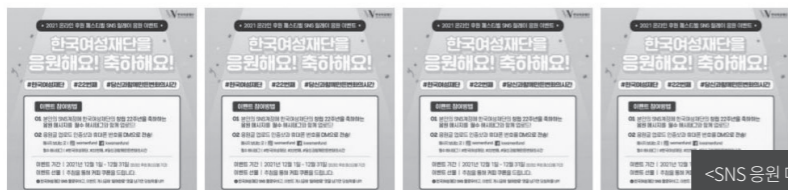
 #한국여성재단 #22번째 #당신과함께만든변화의시간

이벤트 기간

2021년 12월 1일 ~ 12월 31일
(2021 온라인 후원 페스티벌 기간 중)

이벤트 선물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SNS 응원 메시지 이벤트>

기부 리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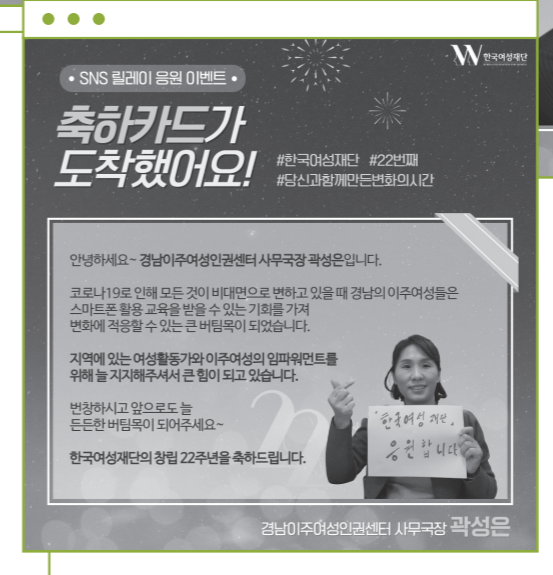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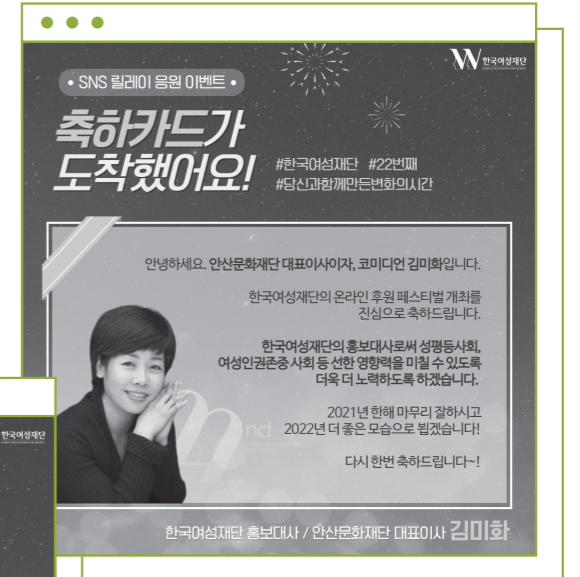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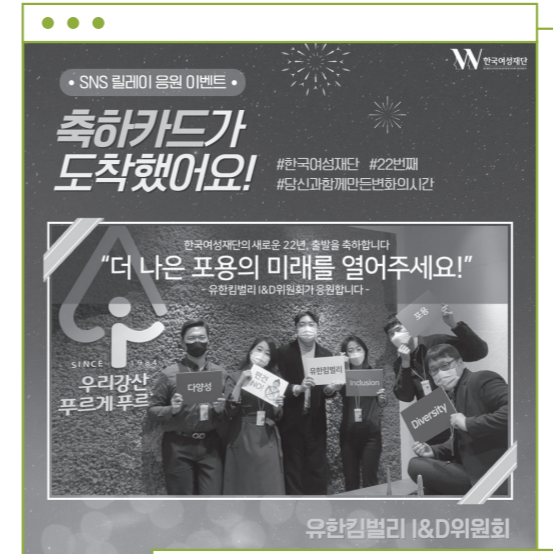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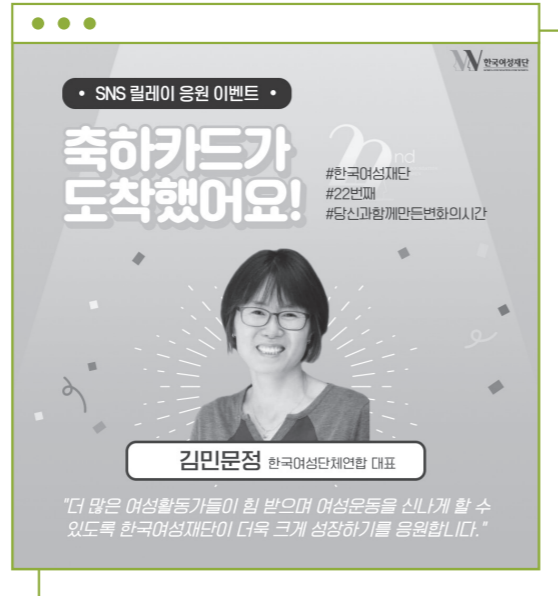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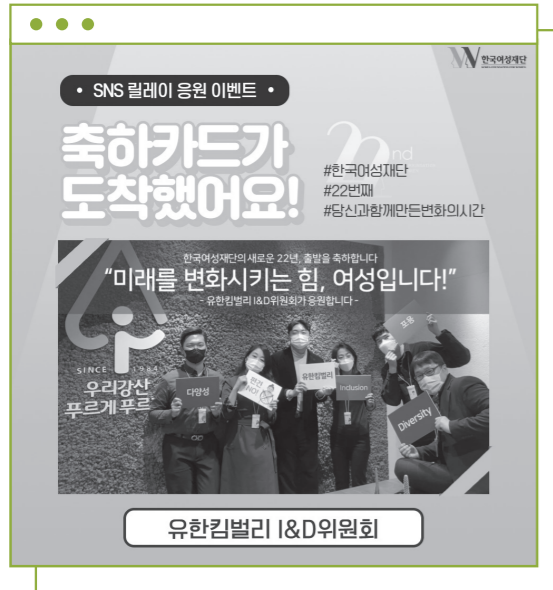
기부하고, 선물 받아요!

➔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2022년 탁상달력과 소정의 선물을

➔ 22주년 축하 특별 기부금인 22만원 기부자에게는 화제가 **故임화공님의 도예 작품**을 보내드립니다.

※ 색상·종류 임의지정 불가하며,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기부 리워드 기부하고, 선물 받아요!>



‘SNS 릴레이 응원이벤트’ 축하카드가 도착했어요.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후원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12월 한달 동안 매주 수요일, 축하카드가 도착하였습니다.

한국여성재단체연합 김민문정 대표,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광성은 사무국장, 유한김벌리 I&D위원회,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이임조 대표,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이자 안산문화재단 김미화 대표이사님의 애정 듬뿍 담긴 축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여성재단 2021년 온라인 후원 페스티벌에 진심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한국여성재단은 더욱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도약하는 한국여성재단이 되겠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요...” 한국여성재단의 역할, 후원자들이 말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기업의 ESG 경영을 지지하고 직장 내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성(D&I)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만호
EY한영 회장

한국여성재단은 느티나무다.

신현옥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과 서로 돌봄으로 모두가 웃는 세상을 위해 활동합니다.

황윤옥
하자센터 센터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성, 우리 사회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란
한국여성재단 팀장

한국여성재단은 이주여성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역량강화를 통해 당당히 설 수 있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여성과 딸들의 ‘지금’이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 한부모 여성가장도 그 자녀도,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한국여성재단이 필요합니다.

김진주
하나와여럿 한부모회 대표

우리 모두의 오래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분투하는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동행자, 여성재단입니다.

김영선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전공주임교수

여성이 미래다. 세상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여성재단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성평등한 사회

박애순
한국여성재단 팀장

The Korea Foundation for Women is the hope engine that is propelled by human giftedness and resources and is destined to reach women's empowerment and a mutually caring and equal society.

한국여성재단은 인간의 재능과 자원에 의해 추진되는 희망의 엔진이며, 여성의 역량강화와 상호 배려, 평등 사회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한다.

Aileen C. Park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이주 여성, 누군가의 엄마, 작은 업체의 CEO, 나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 끝없이 도전하는 이주여성의 이야기

[이주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는, 이주여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회공헌사업으로 2015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JP모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지원 대상으로서의 이주여성이 아닌 적극적 역량강화의 주인공으로서 이주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2021년 My Future, My BusinessIII에 참여한 15명의 이주여성 중, 최종 성과보고회에서 사업의 참여 소감을 발표한 3명의 이주여성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주세요.



조 영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시골손두부의하루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영입니다.



왕지연

안녕하세요.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축제 기획 및 지원, 중국어 교육 등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랑컬처 대표 왕지연입니다.



김정아

통영에서 토탈뷰티샵 운영을 꿈꾸는 다이아몬드뷰티헤어 대표 김정아입니다.

My Future,
My BusinessIII에
참여하신 소감은?



조 영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을 통해 시골손두부의하루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고 매출 상승과 고객 증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컨설팅 솔루션을 통해 인테리어 개선했고, 금전적 이유로 미뤄졌던 업체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무회계교육과 1:1 멘토링을 통해 업체를 운영하면서 긴가민가한 문제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매장 운영을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특히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통해 변화한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왕지연

”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통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많은 부분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학생 모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컨설턴트 선생님이 월 1회 방문하시고 수시로 카카오톡을 통해 조언해주시고 아이디어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소상공인 지원 정보 나눠주셔서 좋았고, 멘토링은 함께 세무서까지 가서 어려운 지점을 해결해주셔서 여러모로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정아

”

한국에서 산지 오래되어도 가끔 버려진 강아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외국인이어서 안 되고 모든 것이 단한 느낌이었었는데 한국여성재단을 만나고 심리적, 물리적 지지뿐 아니라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느낌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조 영

이 가게를 크게 키우고 싶어요. 이거를 기초로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두부요리를 먹을 수 있게요. 맛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어 봤으면 좋겠어요. 음식점을 크게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내가 자부심 느끼는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손님들이 내가 요리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 성공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



양지연

한사랑걸처가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의 걸스카우트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몽골의 엄마나라 언어를 한 시스템 안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꿈이예요. 많은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서 다른 나라 언어를 경제적 부담 없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이주여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조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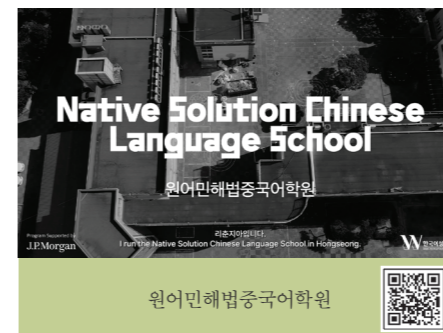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보다 주변에 이주여성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단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움직이고, 행동해야 뭐가 되겠죠? 모든 사람은 힘들고 괴로운 게 있어요. 100%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냥 안고 사는 거죠. 살다보면 제가 재단을 만났듯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단체도 만날 거라 생각해요.



김정아

저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미미하더라도 뭔가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 가게를 보고 성공했네 라고 말하기도 해요. 뭐가 성공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한 노력을 알아봐주는 것이 좋아요.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느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요.

<영상바로보기>



글- 지원사업팀 복금희 과장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신 대표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과 JP모간은 앞으로도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15인의 이주여성 대표님들의 소감은 인터뷰집을 통해, 6편의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 02-336-6559, 지원사업팀 복금희 과장)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_영상촬영 사진

사이버 세상의 길잡이별이 되겠습니다.

Q.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를 소개해주세요.

A. 저희 단체는 사이버 불법 유해정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예방교육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면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최근 악성댓글, 사이버 음란물, 온라인 도박 등 불법 유해정보 증가로 피해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 불법 유해정보의 노출은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응센터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들을 교육을 통해 안내하고 콘텐츠들을 제작하여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요.

Q. 한국여성재단의 디지털역량강화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A. 저희가 하는 사이버범죄예방교육은 아직까지 왜 필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인식을 개선하고 활발한 활동과 교육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대면교육이 효과가 높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축소되고 중단되면서 비대면 교육을 준비하려 했지만 경험도 없을 뿐더러 비대면 교육의 경우, IT 장비나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여 단체 운영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재정적인 후원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은 진행하지 못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디지털역량강화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지원 덕분에 온라인 회의나 교육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Q. 디지털역량강화지원사업이 단체에 가장 도움이 된 게 있다면요? 어떤 매력이 있나요?

A. 특히 노트북 지원은 저희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업무를 하다 보니 예방교육을 나갈 때도 오래된 개인 노트북을 가져갈 때가 많아 노트북 사양에 따라 다양한 교육장 환경에 대처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흩어져 있는 센터의 데이터를 드디어 한 곳으로 모아 저장할 수 있게 되어 파일 관리도 용이해졌죠.

덧붙여 디자인 작업의 경우 컴퓨터 성능이 무척 중요한데 사양이 좋은 노트북을 구비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고 시간도 줄일 수 있었지요!

Q. 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A. 메타버스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메타버스로 유명한 제페토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고요. 비영리IT지원센터와 연결되어 세밀하게 사전 물품 구입부터 사후 컨설팅까지 받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많이 여쭙보았는데 피드백도 빨리 해주셔서 바로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해주는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생겨 든든하였고 앞으로도 종종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A. 계획하였던 비대면 사이버범죄예방교육 콘텐츠를 현재 하나씩 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면서 타 기관을 방문하거나 소개하지 못하였는데 이젠 지원받아 구매한 마이크와 조명, 카메라를 가지고 만든 콘텐츠로 저희 단체만의 차별성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사이버불법유해정보 관련 기관 내에는 나홀로 사이버범죄를 위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을 소개하고 서로 연대하며 응원하고 싶습니다. 비영리로 일을 하는 것은 무척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많았는데 소중한 지원을 통해 저희 단체는 한걸음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기뻐합니다. 이 사업이 계속되어 비영리단체들이 힘을 얻고 비영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받은 지원을 잊지 않고 센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W**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공개강좌

홈페이지: cyberdelkey.or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cyberdelkey>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ivExnX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yberdelkey>
 #cyberdelkey.org #사이버범죄 #대응방안 #예방교육 #신고방법 #사이버델키

글- 지원사업팀 장근영 과장

한국여성재단 영상 콘텐츠는 내 손안에! 마큐라 홍효은 감독을 만나다.



홍효은 감독

한국여성재단은 2021년 영상 콘텐츠 제작이 많았습니다. 한국여성재단 5차 여성회의 온라인 개최, 이주여성 3인의 변화 스토리, 유한킴벌리 NGO여성리더십과정 및 교육장학생 모집, 성평등 기금 모금 캠페인, 짧은 여행 긴 호흡,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 소개 영상 등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함께 한 마큐라 홍효은 감독을 만나보았습니다.

1. 홍효은 감독님을 소개해 주세요.

마큐라에서 영상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홍효은입니다. 마큐라에서는 광고 홍보 영상 및 교육 영상 제작, 개인적으로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릴 적 꿈이 감독님이셨나요? 감독이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어릴 적 꿈은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연극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진학시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영화를 선택해서 전공을 하였고 그 후 영화감독,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습니다. 감독이 된 후 열심히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끝이 없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3. 한국여성재단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여성재단 영상 콘텐츠 제작은 2020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 강유가람 감독의 소개로 인연이 닿았고 그 후로 한국여성재단의 매력에 빠져 영상 작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한국여성재단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지원을 하였는데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존재는 지원사업 신청 과정을 통해

서 알게 되었고 '재단이 그렇구나,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엄청난 일들을 하는구나'라고 구체적으로 생각이 든 것은 영상 콘텐츠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에 지원하였을 때 만해도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그 당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여성감독들에게 고마운 지원 사업이었고 여성감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 활동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 넓게 지원하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2020년 유한킴벌리 여성 NGO 장학사업 영상을 두 편 제작을 하면서 한국여성재단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고 타이포그래피 홍보 영상 및 장이정수 대표님을 비롯하여 4명의 여성 활동가의 활동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4. 2021년 한국여성재단 영상을 많이 제작하셨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는 촬영을 하면서 참여자들도 많이 만나셨는데 기억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야기 나눠주세요.

2020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주여성 3인의 이야기를 촬영했던 때입니다. 태국에서 오신 이아리 선생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말이 서툴러서 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였지만 영상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 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한국어가 많이 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촬영을 두 번을 하였는데 첫 번째 촬영 시 태국 음식과 과자를 주셨습니다. 두리안이 들어간 태국 과자가 너무 맛있다고 하니 두 번째 스튜디오 촬영 시 맛있다고 한 과자를 사오신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양성 존중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영상을 촬영하면서 선생님 댁에도 가서 자녀들과의 모습들, 일상의 모습들을 담으면서 그동안 촬영 영상은 스튜디오나 기관에서 촬영한 경험들이 많았는데 그런 촬영이 아닌 실제의 모습을 담으면서 저에게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연출된 모습이 아닌 삶속에서의 진솔한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이아리 선생님과 대화를 하거나 함께 있으면 자존감 높은 감정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한 가지를 나누자면 5차 여성회의 온라인 개최 영상을 제작했을 때인데요. 여성 활동가분들

이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올린 게시물을 모아 엮는 작업이었는데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개별성이 살아 있다는 것이 좋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하나의 채널로 모아져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여성재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 영상 제작하시면서 감독님이 느끼셨던 한국여성재단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한국여성재단과 작업하면서 좋았던 것은 담당자들의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 되고 이것만 좋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건 위험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니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낼 수 있었고 영상 콘텐츠에 잘 녹아내려져 작업이 재미있었습니다. 작업에 대해서 신뢰감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 시 '이 영상을 누가 볼 것인가?' 단발성 영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미는 물론 열린 목적으로 의도를 담아내서 균형을 잡고 영상을 만들어야 하니깐요. 관련 서적도 공유해 주며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함께 작업하면서 모든 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6.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2022년 마큐라는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 기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팀원들과 소통 중에 있습니다. 분야는 환경 분야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작 중인 도시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W

인터뷰 내내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열정적인 모습과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허락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홍효은 감독의 앞으로의 활동을 한국여성재단은 늘 응원합니다.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10월 27일(수) 사업에 참여한 이주여성 활동가와 이주민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다양성존중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의 성과보고회를 온라인 ZOOM으로 진행했다.

이 사업은 하나금융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이 사업은 수혜자에 머물러 있던 이주여성이 활동의 주체로 다양성 존중 사회로의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업시작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성과보고회는 이주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역량과 경험을 펼쳐놓는 시간이었다. 특히 지구인의 정류장은 1300여개가 넘는 영상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고,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아랍여성을 위한 생활 가이드북을 웹용으로 제작한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이주여성’으로서 ‘활동가’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펴보는 영상으로 보고회를 마무리하였다. 이주여성들은 향후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기대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예산집행부터 활동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2021 삼성행복대상 여성선도상 수상**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이 2021삼성행복대상 여성선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2021년 11월 8일 서울 한남동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여했다. 삼성행복대상 ‘여성선도상’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 사회공익에 기여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여성선도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1986년 우리나라 최초 여성학과 교수로 부임해 30여년간 한국 여성학의 태동과 발전을 이끌었다. 아시아여성학을 발전시켜 한국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운동을 이끌어온 실천적 여성학자다. 이밖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여성자문기구 초대의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장, 한국여성학회 회장, 세계여성학대회 조직위원장, 아시아여성학회 회장, 아시아위민브릿지두루두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여성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사회 조성과 여성들의 기본권 보장, 여성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양육미혼모, 여성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이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활동 공유회 개최**

지난 12월 10일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선정자 풀뿌리 및 문화예술 분야 활동가들의 2021년 활동공유회를 온라인 ZOOM으로 진행했다. 팟캐스트, 시와공연, 영화, 음악, 북토크, 자기돌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김혜이 감독의 다큐멘터리 <멘탈과 브레인 사이>의 DMZ 우수프로젝트 수상, 빅이슈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수 음악>,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의 <결 나누는 날>, 대전 맛배집의 유진솔 등 싱어송라이터의 공연과 북토크 등 다양한 문화 로컬 활동이 돋보였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 맞서 참신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표현하고자 애쓰는 활동가들의 고민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주의 가치와 운동을 확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조성사업:
짧은여행 김호흡 활동 공유회 개최**

이 사업은 올해 디지털 기반조성을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 단체의 성장, 여성운동 현장의 변화를 목표로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됐다. 씬을 통한 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는 ‘중년 활동가의 정체성과 활동방향, 돌봄과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조한진희 작가(다른몸들 대표, 책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자)와 함께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가자들의 각기 다른 다채로운 씬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디지털역량강화지원사업의 성과를 사례 중심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 여름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우수단체로는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성북청년시민회>,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하나와여럿한부모회>가 선정되었다. 디지털 기기 지원뿐만 아니라 역량강화교육과 사전사후 컨설팅으로 단체의 지속적인 온라인 활동 전환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전하였다. 인터뷰 영상은 한국여성재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W

수입



- 기업지정기부금 47.7%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3.5%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7.4%
- 특정명의기금 4.5%
- 일반기금 13.3%
- 기타수입 13.6%

지출



- 모금사업비 0.3%
- 배분사업비 112.4%
- 홍보사업비 1.0%
- 경상비 17.4%
- 시설비 1.1%
- 영업손실 -32.2%

(단위: 원)

항목	내용	금액
기업지정기부금	기업,기관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889,989,922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 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성평등기금모금캠페인	252,543,121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37,074,540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83,990,000
일반기금	협찬금, 프로스페라	248,412,243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251,965,724
총 수입		1,863,975,550

(단위: 원)

구분	항목	내용	금액
모금사업비	후원의밤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6,485,549
고유목적사업비	배분사업비	1. 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095,327,601
		2. 소외여성 empowerment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봄빛장학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3.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심프로젝트-짧은여행긴호흡 (교보생명)	
		4. 프로스페라운영기금(프로스페라)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8,374,463
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23,830,845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20,104,825
영업손실			-600,147,733
총 지출			1,863,975,550



숲으로
지구의 지구력을
높인다

우리가 만든 탄소를
깨끗한 산소로 바꿔주고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지구의 열을 내려주고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대신 머금어 주고

지구에서 사라져 가는
생명들을 품어주며
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숲

기후위기와 긴 싸움 중인
지구가 지치지 않도록
숲으로 지구의 지구력을 높이는 일
여러분도 유한킴벌리와 함께해 주세요!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시니어들의 건강한 삶과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0+를 위한 배움과 나눔의 커뮤니티 전성기캠퍼스

50+세대를 위한 어워즈 라이나50+어워즈

유쾌한 중년을 위한 헬스&라이프 매거진과 플랫폼 전성기

라이나생명 임직원의 나눔 실천 라이나건강한봉사단

라이나생명 텔레마케터의 목소리로 전하는 사랑있는전화